

축사



가짜뉴스가 넘치는 정보전염(infoemic)의 시대, 빛나는 저널리즘의 가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세계기자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특별히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8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세계기자대회>는 '민간외교의 대표적 모범사례'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실있게 행사를 준비해오신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세계기자대회>는 '가짜뉴스(Fake news)', '코로나19', '한국전쟁 70주년' 세 가지 주제로 언론의 미래를 모색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는 전에 없던 감염병의 창궐과 경제불황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와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핀셋 규제'가 요구되는 분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그러한 관점에서 '코로나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짜뉴스'는 국민안전에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만큼, '정보전염병(Infodemic)' 방지를 위해 '가짜뉴스 방역'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유명한 저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가짜뉴스로 전 세계 800여 명이 사망했고, 5,8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정보'가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경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증해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 세계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세계 언론인 여러분,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 전 '6·15 공동선언'으로, 그리고 2년 전에는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과 북이 뜨겁게 손을 맞잡았지만, 최근에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야말로 남과 북이 추구해야 할 숭고한 목표이며,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라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호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남과 북이 '운명공동체'를 넘어, '생명공동체' 라는 사실을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대한민국의 담대한 여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모두가 뉴스를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역설적으로 저널리즘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회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언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연대를 도모하는 지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무총리 정세균